

예쁜가족상에 선정된 '고양시 성명숙가족' 팀이 노래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불자인 시어머니와 개신교인 며느리,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두 종교를 모두 믿는다는 아들까지 종교를 초월한 화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가족이 화합하면 세상이 행복해요"



김병조 씨의 재치있는 사회로 경연대회의 재미와 감동을 더했다.



이날 경연에는 응원도 활발히 펼쳐졌다.



관객들이 참가자의 재치에 박장대소하고 있다.

조계사 4월 21일 제1회 3대가 행복한 노래경연 현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런 걸 고군분투라고 하죠. 지방자치가 잘된 서로서로 재미있게 논 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율동을 준비하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게 가족화합 아니겠습니까."

4월 21일 화창한 날씨 속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할머니와 아이가 함께 하는 노래무대가 펼쳐졌다. 노래에 맞춰 한바탕 춤사위 끝에 내려진 평가에 대중은 웃음을 터트렸다.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이를 사랑스럽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함께 나온 가족들은 미소를 지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4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 '제1회 3대가 행복한 노래경연대회 하하하 노래자랑' 은 참가한 가족들과 대중이 모두 함께 즐거운 행사가 됐다.

이날 경연에는 마포구김복순가족, 정산대군, 사랑하는우리가족, 라이온킹 등 3대가 함께 구성한 8개 팀이 참가했다. 경연의 사회는 김병조 씨가 맡아 재치있는 입담으로 즐거움을 더했다.

2번째 참가팀인 정산대군의 경우 불공을 통해 얻은 아이 정산을 위해 3대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우리 어머니는 조계사서 열심히 공부하는 불자시고, 아버지는 늦깍이 불자세요. 남편은 그저 그런 불자, 아들은 모태불자입니다."

8가족 참가, 모든 가족 상받아
조손 함께 율동 연습하며 화합
함께 하는 것만으로 행복 더해

사회를 맡은 김병조 씨는 24개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자니 34개월된 불자 할아버지라며 격려했다.

김병조 씨는 "저도 7대 독자 집안에서 백양사에서 기도해서 태어났다. 할머니가 불심을 심어주셨는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 나쁜 길로 갈 수 없다"며 "오늘 참가한 인연으로 항상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나온 정순례 씨는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번 노래 경연에 참여했다. 함께 경연에 참여한 아들인 이성윤 씨는 "연로하신데도 딸을 봐주셔서 불효하는 듯해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몸이 안 좋으신데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고 했다. 정순례 씨는 "손녀딸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 보는 순간이 즐겁게 한다. 노래연습 시간도 함께해 너무 행복했다"고 말해 대중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김병조 씨는 "이런 게 어머니 마음"이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가족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를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4대가 함께 참석한 가족도 있었다. '라이온킹' 팀으로 참여한 김학중, 안소연 씨 등 가족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를 불러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증손자, 증손녀 할머니인 김학중 씨는 이번 대회 참여를 위해 청주에서 상경했다.

김학중 씨는 "가족이 화목하고 함께 모여 노래하는게 너무 행복하다. 청주에서 올라오며 연습했다"고 말했다. 딸 안소연 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같이 함께하니 너무나 좋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팀으로는 고양시성명숙가족이 무대에 올랐다. 이 가족은 성명숙 씨가 조계사에 다니는 불자지만 며느리 조수아 씨는 교회에 다니는 다종교 가족이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아들 윤현수 씨는 "교회도 갔다 절에도 갔다 한다"며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어머니께서 특히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잘해주셔서 화목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조 씨는 "요즘 가족끼리 종교가 달라 싸우는 곳도 있는데, 이번 노래경연대회의 본취지를 넘어선 또 다른 화합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조만간 며느리께서 절에 같이 나가시겠네요"라고 웃음을 더했다.

노래경연은 행복한 가족상에 '라이온킹' 팀이, 예쁜가족상에 '고양시성명숙가족', 멋진가족상에 '정산대군', 즐거운가족상에 '종로복지관팀' 등 모든 가족이 상에 선정됐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첫 대회여서 미흡한 점도 많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도록 하겠다"며 "이런 화합의 무대가 조계사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열려 불자가족과 국민들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했으면 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총무원장 : 혜 인 사서실장 : 천 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